

광주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지현(여·24·동구 학동)씨는 본인의 SNS에 'No! ○○'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한 유제품 회사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로 대기업인 이 유제품 회사에서 여성을 채용할 때 100% 비정규직으로 뽑고, 오히려 일가가 막약사범으로 적발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김씨는 "악질적 기업운영에는 스마트 컨슈머로 답해야 한다"면서 "알면서도 이 회사 제품을 소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빈(여·38·광주시 남구)씨는 자녀 둘을 데리고 20일 오후 광주 시 남구 백운동의 한 샵사브 가게를 찾았다. 1인분에 2만4000원으로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사람을 살린 선행사례를 전해 듣고 '이 가게는 팔아줘야겠다'고 생각해 찾았다는 것이다. 조씨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하면서 선행을 베풀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주변에 선행을 한 '영웅'한테는 선행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웃었다.

불매운동·돈쪼물... '개념소비' 는다

악질 기업 제품 구입 안하고 손님 살린 식당 일부러 찾아가고 MZ 세대·맘카페 중심 분위기 확산...자영업자 피해는 어찌나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기업들에겐 '불매운동'을, 좋은 일을 한 업체는 더 이용하려는 '개념소비'가 늘고 있다. 특히 젊은 MZ세대들이 이용하는 SNS나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개념소비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비가 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갑질'과 '막약'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제품 회사와 지난 10월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제과업체 제품의 불매 분위기가 가열되는 모양새다. 업체 이름을 본 딴 '○○유업'이라는 앱도 등장했다.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타사 제품인척 하는 판매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특정 업체의 제품인지 확인해주는 방식인 이 앱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멘소리가 나오

고 있다. 광주 시 남구 백운동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가게를 운영하는 강인주(여·42)씨는 지난 10월 공장 사고 이후 반토막 난 매출에 힘겨워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판매가 늘어 하지만 본사의 안일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것이다. 강씨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주말에도 진열대에 가득 채워둔 케이크가 전혀 팔리지 않아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불매운동도 좋지만 본사에는 타격이 없고 정작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에 합리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돈쪼물'(돈으로 혼쭐내야 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내야 한다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 광주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광주지역 식당들이 언급되며 식당의 선행사례가 공유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식당은 돈쪼물당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지난 2010년 개업해 밥과 3찬, 따뜻한 국으로 구성된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이 식당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식당 앞에 있는 '기부 방명록'에는 참기름, 고기부터 현금까지 개인과 단체들이 기부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돼 있다. 소비자들이 밥값과 함께 기부금이나 기부품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돕고 있는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운경(여·50)씨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사람 살린 식당'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식당도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던 지난해 8월 광주 시 남구 백운동 한 샵사브 가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년 여성을 식당 주인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으로 살렸다는 이유에서다. 식당 주인 김경호씨는 "이날 이후 방문객들은 종종 '여기가 사람 살린 집이라면서요'라고 묻는다"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아줘서 고맙다"며 미소지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곳 어디?

노동부, 광주·전남 공공기관·민간기업 15곳 공개
광전연·신안군복지재단 '0명'...한전CSC 1.07%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기업은 지난 4월 사전보고가 됐음에도 지난달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436곳에 달했다. 공공기관으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2.72% (의무고용률 3.4%의 8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으로 전국에서 17개 공공기관이 확인됐고 광주·전남에서는 4곳의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연구원과 신안군복지재단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목포시의료원이 각각 0.51%, 0.79%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 중

은 기간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광주·전남 지역 민간기업으로는 (주)광주은행(장애인 고용률 0.89%)과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CSC(1.07%)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광주기동병원(0.81%), 조선내화(주)(0.97%), 백제약품(주)(1.37%), (주)가현건설산업(0%), 정풍건설산업(주)(0.22%), 크나우프석고보드(주)(0.61%), (주)송광건설(0.63%), 금호파넬비화학(0.84%), 위니아에이드(1.05%)의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과장은 "명단 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학들 졸업유예금 왜 받습니까

졸업 미룬 학생 학적 유지 대가...전남대 수업료의 8%·조선대 10만원

광주 일부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물제)'을 졸업유예금(유보금)으로 정했고, 조선대도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며 "졸업유예금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선대는 '졸업 유보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남대도 지침대로 돈을 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타디움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광주대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 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해

졸업 대상자임에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졸업 유예 학생에게 수업료를 반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악습이 반복돼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졸업 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고, 졸업 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단지 학적 유지를 대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대학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승진 113명 등 정기인사

전남교육청이 20일 내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총 761명이다. <주요 인사 명단 21면> 승진 113명, 전보 374명, 공로연수·정년(명예) 퇴직 등 220명, 신규임용 54명 등이다. 4급 승진자는 1명으로, 총무과 박상길 인사팀장을 승진 임용해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에 파견 발령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훈련 파견에서 복귀한 이경

도 서기관을 국제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강진교육지원청 선종관 행정지원과장이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옮기는 등 5급 40명이 자리를 옮겼다. 또 흥보담당관 마창우 공보팀장 등 5명을 교육지원청 신규 행정·재정지원과장으로 보직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김선복 학교지원센터장이 분청 흥보담당관 공보팀장에 임명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돌봄이웃 찾아가는 산타 산타복장을 한 광주 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0일 용봉동 일대에서 돌봄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